

# 커피 이어 초밥까지... 외식업 'DT매장 시대'

〈드라이브 스루·차에서 주문·음식 수령〉

### 주차 걱정 없고 혼잡족 간편...광주 24곳서 성업 중

### 패스트푸드·커피점 포화...담양·장성 등 외곽으로 확산

자동차 안에서 주문을 하고 계산한 뒤 음식을 받아가는 '드라이브 스루'(DT·Drive Thru) 매장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패스트푸드와 커피를 넘어 광주에 초밥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문을 여는 등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9일 각 가맹점 등에 따르면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DT(드라이브 스루) 매장은 패스트푸드와 커피, 초밥전문점 등 총 24 곳이다.

맥도날드의 경우 북구 동림·운암·용봉·전남대점, 광산구 첨단·산정점, 서구 상무대·쌍촌점, 남구 진월·월산점 등 10개 매장을 운영하며 광주에서 가장 많은 DT 매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리아도 남구 주월점과 서구 농성점, 북구 운암점 등 3곳에 매장이 있다. KFC는 북구 용봉점 1곳을 운영 중이다.

버거킹도 남구 백운동 인근에 DT점 오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는 DT점 시장진출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기에 커피전문점들의 시장진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다.

국내 커피전문점 가운데 가장 많은 DT 매장을 보유한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최근 광산구 산정동에 흑석점을 신규오픈했다. 흑석점을 비롯해 광산구 신가·운암·수안, 남구 방림, 서구 쌍촌, 북구 운암·신용 등 총 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DT 매장을 연 엔제리너스 커피도 2012년 6월 광주광천점을 1호로 출발해 전국에 9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광주에는 북구 운암점 등 총 2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드라이브 스루 매장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과거와 달리 자동차 생활권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현대인들이 출·퇴근 길 등 짧은 시간 내에 음료와 음식을 가져가는 '테이크아웃'을 경험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에는 광주에서 최초로 초밥전문점 DT매장까지 생겼다. 남구 방림동에 있는 '미스터초밥 DT점'이다.

초밥 DT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경우 차량 안에서 음식을 먹기보다 집에 가져가 식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맞벌이와 1인



패스트푸드점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퇴근 후 음식을 해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것보다 집에서 간단히 식사하는 사회분위기가 덕분에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 각 업계의 DT매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상무대로 등 주변은 물론, 시 외곽에 몰려있다. 장성과 담양, 화순과 나주 혁신도시 등 광주 인근 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수요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미 도심에는 패스트푸드 매장 과 커피전문점에 '포화상태'라는 점에서도

각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외곽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 때문에 앞으로 DT 매장은 점차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진석 프랜차이즈·창업컨설턴트는 "DT 매장은 출퇴근길에 나서는 직장인과 시외로 데이트를 가는 연인 등 다양한 고객층에게 인기가 높다"며 "혼자일 경우에도 굳이 매장 안에 들어오지 않아도 되고 주차 걱정도 없어 이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68.39 (-26.34)    ↑ 금리 (국고채 3년) 1.83% (+0.03)

↓ 코스닥 642.87 (-8.80)    ↑ 환율 (USD) 1135.20원 (+10.10)

## 광주·전남 고용률 60%대 진입

### 통계청 조사...7월 고용률, 전년비 광주 늘고 전남 줄어

올해 7월 광주지역 고용률은 60%대에 진입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상승했지만 전남지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7월 광주·전남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고용률은 59.7%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취업자는 76만2000명(2.1%) 증가했다. 산업별로 광공업(23.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은 증가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2.1%),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0%), 건설업(5.8%)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전년 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39만명으로 1만8000명(4.9%), 일용근로자는 4만명으로 6000명(16.2%)이 증가했으며 임시근로자는 14만9000명으로 3000명(1.7%) 감소했다. 실업률은 3.3%로 전년 동월대비 0.4%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는 2만6000명으로 4000명(15.7%)이 증가했다.

전남지역 고용률은 61.4%로 전년 동월대비 1.5%포인트 하락했으며, 취업자는 92만7000명으로 2만3000명(2.4%)이 감소했다. 산업별로 도소매·음식숙박업(1.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9%), 건설업(6.8%)은 증가하고 농업(6.5%), 광공업(16.2%), 전기·운수·통신·금융업(12.0%)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는 5만1000명으로 6000명(14.1%)이 증가했고 상용근로자는 31만9000명으로 4000명(1.3%), 임시근로자는 16만8000명으로 1만1000명(6.1%)이 각각 감소했다. 실업률은 3.1%로 전년 동월대비 0.3%포인트 상승했고, 실업자는 2만9000명으로 2000명(8.1%)이 증가했다. 한편 전국 7월 고용률은 61.5%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고용률은 지난 5월(61.3%)과 6월(61.4%)에 이어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아파트 입주여건 '맑음'

### 광주 경기실사지수 25.9P ↑

주택 사업자들은 이번달 전국의 아파트 입주여건이 지난달보다 나아질 거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와 서울의 아파트 입주여건이 가장 양호하고, 경남이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입주경기실사지수'(HOSI·Housing Occupancy Survey Index)를 보면, 이번달 HOSI 전망치는 전국이 89.8로 전월(81.0) 대비 8.8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6·19 대책 이후 주택시장 위축이 우려됐으나 입주여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 않았고, 이에 8월 입주여건이 7월과 비슷한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다만 8월 입주여건 조사기간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이어서, 대책에 따른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110.6)과 광주(100.0)가 지난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100선을 넘어섰고, 대구(78.1)와 경남(78.8)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80~90선을 기록했다.

지역적으로 HOSI가 전월 대비 20포인트 이상 오른 지역은 서울(21.1p ↑), 광주(25.9p ↑), 대전(22.6p ↑), 울산(26.9p ↑)이었다. /\*연합뉴스



필리핀 이주여성들과 자녀들이 필리핀 일리안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견학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 한전, 필리핀 이주여성·자녀 모국 방문 후원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필리핀 이주여성들과 자녀 총 50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모국(母國) 방문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모국방문 행사는 필리핀 이주여성 자녀들에게 미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 주고자 마련되었다. 대상자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도 학업이 우수한

경남 밀양, 광주·전남 소재 중학교 학생들로 선정되었다.

이들은 국제 청소년 교류 행사, 필리핀 일리안 발전소 견학, 문화유적 탐방, 친지 만남의 시간, 필리핀 명문 국립대학인 UP 달리만 대학 방문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한전이 필리핀에서 운영하는 일리안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견학, 해외

전력사업을 이해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조환익 사장은 "미래의 원대한 꿈을 키워가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주택대출 조이니...신용대출 급증

### 은행권 전주보다 3087억 ↑

8·2부동산대책 시행 이후에도 감소세를 이어가던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이 이번주들어 급증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갑자기 돈줄이 막히면서 대안을 찾던 수요자들이 신용대출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이들 은행의 8·2부동산대책 시행 이후

신용대출 잔액은 2일 92조5899억원에서 4일 92조4418억원까지 1481억원 줄었다. 하지만, 이번주 들어 7일에는 92조7505억원으로 전주말보다 3087억원 급증했다. 부족해진 주택구매자금을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로 마련하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돼 주시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오비맥주 광주공장 노조 10·11일 부분 파업

오비맥주 광주공장 노조원들이 10~11일 이틀동안 부분 파업을 벌인다.

9일 오비맥주에 따르면 광주공장 노조원들은 최근 사측과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10~11일 이틀간 출근을 하지 않는 부분 파업을 진행한다.

오비맥주 노조는 특정 날짜를 정해 청주, 이천, 광주공장 등에서 부분 파업하기로 하고 지난달 말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최근에는 주말근무를 거부해

토, 일요일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광주공장 직원은 300명 가량된다.

오비맥주 사측은 기본급 2.5%, 노조 측은 8% 인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작년에는 3개 공장이 동시에 10일간 파업을 해 제품생산에 차질을 빚었지만, 올해는 부분파업을 해 제품생산에는 큰 지장이 없다"며 "하루씩 타협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Shin Yang Park Hotel

신양파크호텔 여름 패키지

스탠다드룸 1박 + 조식 2인 + 사우나, 수영장 2인

₩110,000원 (세금포함) 객실예약 228-8000  
광주일보 제휴 패키지 예약주시는 분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신양파크호텔과 함께하실 임대업장 사업주를 모집합니다!

▶ 임대업장 : B1 노래방 / F2 한식당  
▶ 상담 및 문의 : 062) 221-4172 총무과  
\*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텔 수영장